

# 브룩스 재계약 1순위... 터커 1루 이동·가농 '물음표'

KIA 스토브리그, 외국인 3인방 잔류 가능성은?

브룩스, 올 11승·방어율 2.50...빅리그 러브콜·아들 건강 '변수'  
터커, 팀 외국인 타자 첫 30홈런·100타점...장타력 입증 재계약 유력  
가농, 마운드 위력 부족...ML 40인 로스터 명단 발표후 거취 결정될 듯

‘윌리엄스호’의 두 번째 시즌 외국인 3인방은 어떤 모습일까?

아쉬움 속에 끝난 KIA 타이거즈의 2020시즌이지만 외국인 농사는 성공적이었다.

2019시즌 실패 원인 1순위로 꼽혔던 외국인 원투펀치를 교체하면서 브룩스와 가농이 새로 팀에 가세했다.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줬던 브룩스가 시즌 중반 가족의 교통사고로 완주하지 못했지만 2.50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을 만들었다.

가농은 기복이 아쉽기는 했지만 선발로테이션을 착실하게 지켜주면서 11승을 더해줬다.

터커는 막판 부진은 있었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32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냈다. 장타력 의문을 지운 터커는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30홈런-100타점' 주인공이 됐다.

KIA의 세 외국인 선수에 대한 평가는 브룩스-터커 '합격', 가농은 '평가유보'다.

브룩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운드에서 에이스로 존재감을 발휘한 그는 팀워크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당연히 내년 시즌에도 브룩스는 KIA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빅리그에서도 브룩스를 탐내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빅리그 팀들은 브룩스를 예의주시했다. KBO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빅리그 팀들의 리스트에 브룩스의 이름이 올라갔다.

또 하나 '가족'이 브룩스에게 중요한 고민이다. 브룩스는 지난 9월 22일 미국에 있는 가족의 교통사고 소식에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아들 웨스틴의 왼쪽 눈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고로 왼쪽 눈을 크게 다친 웨스틴이 의안 수술을 받게 되면서 '가장' 브룩스의 내년 시즌 한국행은 불투명해졌다.

가농도 타이거즈 일원으로 좋은 점수는 받았지만, 마운드에서의 위력이 부족했다.

일단 KIA는 내달 3일 발표되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명단을 지켜본 뒤, 리스트에 있는 선수가 나올 경우 영입을 시도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가농의 운명은 내달 명단 발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터커는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의 세밀함과 슬럼프가 아쉽기는 했지만, 지난해보다 한층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구단은 터커에 합격점을 줬고, 터커도 한국생활에 만족감을 보인다.

하지만 포지션 변화가 예상된다.

시즌 중 윌리엄스 감독과 1루 이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상황이다.

올 시즌 KIA는 유민상을 중심으로 1루를 운영했지만 공-수에서 모두 힘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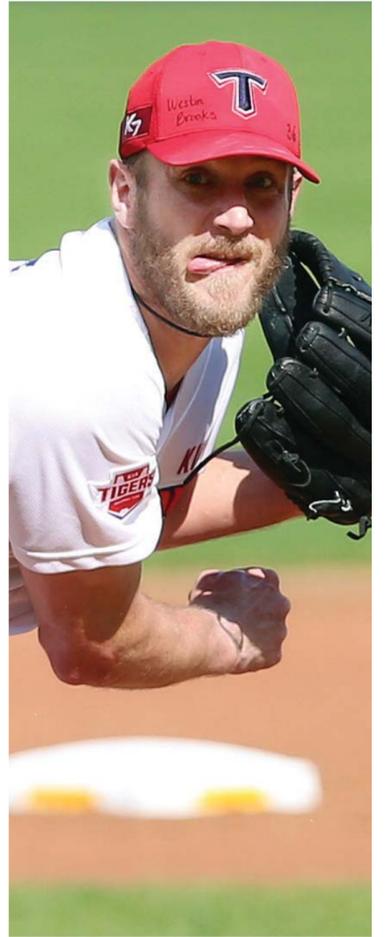
아마추어 시절 1루 경험이 있는 터커도 흔쾌히 1루 변신을 수용하면서 야수진 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룩스



터커



가농

## KIA 마무리캠프 주장은 나지완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임시 주장'으로 2020 시즌을 마무리한다.

KIA는 지난 6일 합평 캠프단의 첫 훈련을 시작으로 마무리캠프 일정에 들어갔다. 16일에는 1군 선수단이 휴식을 끝내고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모인다.

이들은 30일까지 포지션별 맞춤형 체력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마무리 훈련을 소화한다.

챔피언스필드 캠프단은 나지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KIA는 시즌이 끝난 뒤 '임시 주장' 투표를 진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직접 선택을 하도록 했고, 나지완이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서 '임시 주장'이 됐다.

올 시즌 주장을 맡았던 양현종은 FA자격으로 미국행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 최고참 최형우도 다시 FA 시장에 나오면서 마무리캠프 명단에는 빠졌다.

나지완도 아직 허리 디스크로 재활 중이라 이번 캠프에 나지완은 임시주장은 물론 '최고참'으로도 역할이 막중하다.

나지완은 올 시즌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수비에서도 풀타임 활약을 하며 윌리엄스 감독도 인정할 '놀라운 반전'을 이뤘다.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낸 나지완이 '임시 주장'으로 자신과 팀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마무리캠프를 이끌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지매시' 지소연, 세계 여자 축구선수 17위

골닷컴, 세계 기자·특파원 등 500명 투표 'Goal 50' 선정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스타 지소연(사진·첼시 위민)이 글로벌 축구 미디어 골닷컴이 선정한 지난 시즌 세계 여자 선수 랭킹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골닷컴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경기

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42개 네트워크의 기자, 특파원, 편집진 등 500여 명의 투표로 한 시즌 세계 최고의 남녀 축구선수 25명씩을 뽑는 'Goal 50'의 선정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한국 선수로는 지소연이 여자 선수 17위로 유일하게 50명 안에 들었다.

지난 시즌 남자 선수 14위에 자리했던 손흥민(토트넘)은 이번에는 25명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골닷컴은 "손흥민이 2019-2020시즌 팔 골물 부상으로 오래 결장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데다 팀 성적도 실망스러웠다"고 요인을 전했다.

남자 1위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트레블(시즌 3관왕) 달성 주역인 '특급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돌아갔다. 이어 케빈 데브라워너(맨체스터 시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톱5'를 형성했다.

여자 선수 1위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국내 2관왕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끈 공격수 페르닐레 하르데르(현 첼시)가 차지했고, 잉글랜드 아스널의 공격수 비비아너 미데마,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루시 브론즈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제84회 마스터스 대회 출전을 이틀 앞두고 11일 연습라운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즈 "마스터스 우승 순간 지금도 짜릿"

오늘밤 PGA 마스터스대회 개막...한국 임성재, 안병훈 등 출전



우즈는 12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출전을 이틀 앞두고 대회장에서 인터뷰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메이저 15승째를 달성한 우즈는 "작년 우승을 떠올리면 지금도 짜릿하다"며 "그런 뒤면으로 내려오면서 아들 찰리를 안았

던 순간은 1997년의 나와 나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1997년을 시작으로 2001년, 2002년, 2005년, 2019년 등 다섯 차례 우승했다. 코로나19 때문에 4월에서 11월로 미뤄진 올해 마스터스에서 우즈가 2연패에 성공하면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6회)과 동률을 이룬다.

지난해 10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 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우즈는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다.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 샷이 잘 안 되는 식이었다"며 "그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

기 때문인 면이 있다. 이번 주는 메이저 대회인 만큼 모든 샷이 잘 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마스터스는 1번 홀에서만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는 해가 짧아진 11월에 대회가 열리면서 1, 10번 홀로 나눠 경기를 시작한다.

올해 US오픈 우승자 브라이언 디샬보(미국)는 온 랍(스페인), 루이 우스티히즈(남아공)과 1라운드를 치르고, 필 미컬스(미국)는 아브라함 안세르(멕시코), 베르트 비스베르거(오스트리아)와 한 조로 묶였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동반 라운드를 한다. 임성재는 브랜던 토드(미국), 빅토르 페레스(프랑스)와 1, 2라운드를 진행하고, 강성훈은 에릭 판 루엔(남아공)과 2인 1조가 됐다. 김시우는 그레이 맥다웰(북아일랜드), 네이트 래슬리(미국)와 안병훈은 체즈 리비(미국),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와 1, 2라운드에서 함께 한다. /연합뉴스